

2011. 5. 16 제263호

#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문화·디자인

1. 유럽성과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심의 명소를 운행하는 버스를 ‘유럽버스’로 특별 운행 (베를린)
2. 쿠담 거리 125주년 기념 문화예술축제 개최 (베를린)  
(토막기사) ‘아트포인트 계획’ 2011년도 대상사업 시행 (도쿄)  
(토막기사) 역사유적인 풍차를 복원해 도심에 있는 공원에 전시 (런던)

## 산업·경제

3.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동 증진을 위한 신(新)경제발전계획 ‘일하는 리버풀’ 시행 (영국 리버풀市)  
(토막기사) 빈 부지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상점가 조성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방재·안전

4. 도심 쇼핑센터에 경찰서를 설치해 시민편의 및 범죄예방 도모 (영국 리버풀市)

---

## 도시환경

5. 자연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 개인정원 가꾸기 지원 (미국 시카고市)  
(토막기사) 가정에서 쉽고 안전하게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영국  
레스터市)
6. 가로수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로수의 미래' 계획 발표 (런던)  
(토막기사)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방치 자전거 중점 관리 (일본 오사  
카市)

## 도시교통

7. 임대자전거 프로그램을 도심 외곽으로 확대 (런던)  
(토막기사) 도심 내 대중교통수단으로 콘돌라 운영 검토 (캐나다 캘거리市)
-

## 문화 · 디자인

### 1. 유럽성과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심의 명소를 운행하는 버스를 ‘유럽버스’로 특별 운행 (베를린)

○ 베를린시는 ‘유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행사로 ‘베를린에 유럽이 있다’란 슬로건 아래 2011년 5월 9일 베를린의 유명한 시내버스인 100번 버스를 ‘유럽버스’로 특별 운행하는 행사를 마련함.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부장관 슈만이 적대 관계에 있던 독일에 철강 공동생산을 제안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이 적대적 구도의 극복과 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한 것을 기념해 1986년부터 5월 9일을 ‘유럽공동체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펼침.

- 올해 특별행사는 베를린 시민에게 유럽연합의 시민이란 인식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며, 베를린의 유럽화와 국제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임. 市가 슬로건을 통해 강조하는 점은 유럽이 벨기에나 프랑스와 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 자치구 내의 조그만 동네, 시민 각자의 집 앞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임.

· 100번 버스는 도시를 지나면서 주요 관광지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베를린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용하게 되는 유명한 시내버스임. 대체로 이 버스는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 참. 1990년 통일과 함께 개통되어 동베를린의 중심인 알렉산더 광장과 서베를린의 중심인 쿨담을 처음으로 연결한 버스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큼. 이 버스가 운행하는 19개 정류장은 유럽의 역사 및 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현장이기도

함. 이 때문에 市는 100번 버스를 ‘유럽버스’로 꾸미고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 운행하기로 함.



- 버스 외관은 유럽연합국기 모양으로 꾸밈. 버스 내부의 노선안내도에는 19개 정류장 부근 장소와 관련된 유럽의 역사가 기술되고 팸플릿으로도 제작되어 버스에 비치됨. 각 장소의 유럽성은 자유, 평화, 민주주의, 관용, 혁신, 이동성, 복지의 7개 주제로 나눠 나타냄. 예를 들어 옛 베를린 장벽 부근 정류장은 자유, 독일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 정류장은 유럽 민주주의, 훔볼트대학과 국립도서관 정류장은 유럽의 과학과 혁신을 보여줌. 행사 기간에 100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베를린을 유럽의 한 도시가 아니라 유럽의 대표 도시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市는 이 행사 외에도 브란덴부르크문(門) 앞에 ‘유럽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 市 경제기술여성국은 유럽연합 지역발전기금으로 진행된 12개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부스를 지역발전기금 청사 앞에 마련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505.0615.343117.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505.0615.343117.html))

([www.berlin.de/rbmskzl/europa/oeffentlichkeitsarbeit/information.html](http://www.berlin.de/rbmskzl/europa/oeffentlichkeitsarbeit/information.html))

## 2. 쿠담 거리 125주년 기념 문화예술축제 개최 (베를린)

- 베를린의 쿠담 거리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125년을 맞이함. 市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1년 5월 5일부터 10월 말까지 각종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약 4km에 달하는 쿠담 거리는 1886년 5월 5일에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운행됨으로써 대로(大路)의 역사가 시작됨.
  - 쿠담 거리는 과거에 정치적 저항과 힘을 표출했고 현재는 쇼핑거리로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핵심장소임. 또한 문화예술가와 창의적인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장소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 받는 호화로운 대로 중의 하나인 쿠담 거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 베를린 유한회사’가 2010년 9월부터 이번 기념행사를 기획함.
  - 5월 5일 브라이트사이트 광장(쿠담 거리의 시작점에 있는 광장)에 조성된 야외 전시장에서 개막식이 개최됨. 전시장에서는 쿠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특히 쿠담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려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이 소개됨. 市는 빌헬름 황제 추모교회 보수, 고층건물인 초펜스터 신축, 비키니 하우스 개축 등을 통해 전통적인 대로를 현대적인 장소로 조성해나가고 있음.
    - 또한 야외 전시장에서는 여러 기념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건축, 문학, 예술, 연극,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음.
  - 9월 3일과 4일에 열리는 ‘42시간 쿠담’이란 행사를 위해서 市는 대로 전체의 교통을 차단함. 42시간 동안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패션쇼, 음악공연 등도 관람할 수 있음.



【쿠담 거리에 신축 중인 고층건물 ‘초펜스터’】

- ‘125년 쿠담 거리가 125년 자동차와 만난다’ 행사는 5월 28일과 29일 개최 됨. 市는 자동차도 쿠담 거리와 마찬가지로 올해 125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을 기념해 첨단기술과 아름다움이 접목된 베를린의 자동차를 전시함.
  - 1886년에 카를 벤츠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가 전시되고 1930년부터 1970년대까지 1250대에 달하는 구형 자동차가 브라이트사이트 광장에서 올리바 광장까지 2km 전시공간에 진열됨. 또한 9개 국가가 자신의 나라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를 전시함.
- 쿠담 거리 보행로를 따라 늘어선 유리 진열장을 활용해 ‘쿠담 125년의 역사’란 주제로 전시회도 개최함. 진열장에는 쿠담 거리의 주민, 건물, 상점, 매력, 신화, 꿈, 계획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자료가 전시 됨. 산책과 전시장 관람, 쇼핑과 교육이 하나로 연결됨.
- 7월 초에는 ‘미래의 도로’란 주제로 전기를 이용한 교통수단 전시회가 열리고 7월 30일에는 야간 단축마라톤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림. ‘빛의

축제'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며 조명을 건물 외벽에 비추어 쿠담 거리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함. '빛 갤러리'는 유명 조명예술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게 됨.



【'쿠담 125년의 역사' 전시회】



【빛의 축제】

([www.kulturprojekte-berlin.de/projekte/125-jahre-ku-damm/125-jahre-ku-damm](http://www.kulturprojekte-berlin.de/projekte/125-jahre-ku-damm/125-jahre-ku-damm))

([www.kudamm2011.de](http://www.kudamm2011.de))



### ‘아트포인트 계획’ 2011년도 대상사업 시행 (도쿄)

- 도쿄都와 都 역사문화재단은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도 부터 ‘도쿄 아트포인트 계획’을 추진 중임. 2011년도 대상사업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함. 문화교류 프로젝트는 세계 주요도시와 경쟁하면서 문화예술도 교류하고, 문화예술 분야 차세대를 육성하며, 다양한 지역 문화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都가 도쿄 역사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과 함께 실시하는 프로젝트임. 올해 아트포인트 계획 대상사업은 아래 4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행됨.

- ① 도내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아트포인트(문화예술을 매개로 연계된 사람·마을·활동의 접점)를 만드는 지역형 프로그램, ② 방재, 교육, 복지, 환경 등 다른 정책분야와 연계해 시민 참여의 계기를 만드는 복합형 프로그램, ③ 아트포인트를 창출하고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Tokyo Art Research Lab’, ④ 아트포인트 창출·유지·발전·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그램

([www.bh-project.jp/artpoint/](http://www.bh-project.jp/artpoint/))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4/2014sg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4/2014sg00.htm))

### 역사유적인 풍차를 복원해 도심에 있는 공원에 전시 (런던)

- 런던시는 남부 브릭스톤에 있는 역사유적 2등급인 풍차를 복원해 일반시민에 공개함. 1816년에 지어진 애쉬비 제분소에서 사용하던 풍차가 1935년 이후 사용이 중단되었다가 2005년부터 5년간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원됨.

- 약 10억 원이 투입된 복원사업이 끝난 후 풍차는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브릭스톤 중심가에 있는 ‘풍차정원’에 전시되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끌기 시작함. 풍차는 향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밀과 보리를 제분하는 데 이용될 예정임. 복원비용 마련을 위해 주민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후원자 모임이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였음.

([www.brixtonwindmill.org/](http://www.brixtonwindmill.org/))

([www.bbc.co.uk/news/uk-england-london-13253121](http://www.bbc.co.uk/news/uk-england-london-13253121))

## 산 업 · 경 제

### 3.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동 증진을 위한 신(新)경제발전계획 '일하는 리버풀' 시행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기업활동 증진과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년 단  
기계획 '일하는 리버풀'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감. 지역주민의 고용을  
증대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함.
  - 市는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약 440만 파운드(약 78억 원)의 예산을  
향후 2년간 투입할 계획으로 이 중 절반은 유럽사회기금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市 예산과 중앙정부 사회주택위원회 예산에서 충당함.
    - 市는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빈곤층 밀집지역과 가장 지원이 필요  
한 주민에게 초점을 맞출 예정임. 이에 따라 2013년까지 4000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市는 2013년까  
지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기업 활성화 계획'을 시행  
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 市는 新경제발전계획을 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 교육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시행할 예정임. 특히 25세 이하 청년, 50세 이상 중년·  
노령층, 흑인과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임.
    - 市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계획을 계기로 대량의 질 높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자리 수요를 현장에서 정확

하게 파악하고 일자리를 적시에 공급하고자 간접비 예산은 줄이고 현장 서비스 인력과 예산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임.

- 또한 이번 계획은 숙련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센터와 같은 기관의 인력과 계획을 통합 운영해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둬. 이해당사자들과도 두터운 신뢰관계를 맺어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임.

([www.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195839](http://www.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195839))

#### 빈 부지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상점가 조성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Hayes Valley 지역의 Octavia Boulevard 끝에 위치한 약 1672㎡ 규모의 두 블록은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자연스럽게 Hayes Valley 상가지역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2~3년 후 주택개발계획이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그때까지 공터로 남아 있게 되어 市는 여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레스토랑, 소매상점을 입점시켜 임시 상권을 조성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는 한 설계회사가 독일의 베를린 플래툰(컨테이너 28개를 쌓아 만든 3층짜리 박스형 건물로 미디어 아트, 비디오 아트,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 같은 하위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만든 종합예술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 컨테이너를 레스토랑이나 소매상점 용도에 맞게 탄력적으로 디자인함.

(<http://archpaper.com/news/articles.asp?id=5307>)

(<http://blog.naver.com/showmani/150069724297>)

## 방 재 · 안 전

### 4. 도심 쇼핑센터에 경찰서를 설치해 시민편의 및 범죄예방 도모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영국 최초로 도심에 있는 쇼핑센터 건물을 임차해 경찰서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건물 임차를 위해 소매상연합회와 리버풀 도심 기업활성화 지구의 기업인들이 향후 3년간 임차비용을 지원하기로 함. 市는 도심지에 경찰서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성과 범죄 대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市는 우선 도심지에 있는 세인트존스 쇼핑센터 1층을 임차해 도심의 방범 중심지로 삼음. 이를 통해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市는 최근에 영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뜻하는 ‘자춧빛 깃발’을 수여받았는데, 이는 경찰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함께 일구어 낸 귀한 성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음. 市는 이번 시책 추진을 계기로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을 포함한 市 전체 지역에서 더욱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나갈 계획임.
  - 경찰국은 이번 시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으며,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인 지역안보연합회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범죄 대응 및 시민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된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힘. 도심의 630여 개 기업과 상점을 아우르는 도심 기업 활성화 지구의 대표도 이번 시책 수립과정에서 민관협력이 원활하

게 이루어진 데 대해 크게 고무되어 향후 파트너십 형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함.

([www.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195900](http://www.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195900))

## 도 시 환 경

### 5. 자연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 개인정원 가꾸기 지원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연친화적인 조경을 꾸미고 가꿀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조경 조성비용의 50%까지 보상해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개인별 주거환경에 맞추어 정원을 가꾸는 방법과 모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됨. 주거환경에 맞추어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 주변의 다른 녹지들이 제공해 주는 경제적 효과와 미관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교육함. 정원에 심는 모종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알려진 외래 모종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해 市는 비영리단체와 함께 도심 내 녹지 확충을 위해 ‘The Chicago Trees Initiative(CTI)’란 계획을 마련함. 이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시카고 전역의 20%를 녹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도 제시함. 이에 따라 市는 기존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호하고 녹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임.



【개인정원 조성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역주민】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doi/provdrs/nat\\_res/svcs/how\\_can\\_i\\_get\\_a\\_rainbarrelorcompostbinrebateform.html](http://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doi/provdrs/nat_res/svcs/how_can_i_get_a_rainbarrelorcompostbinrebateform.html))

#### 가정에서 쉽고 안전하게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영국 레스터市)

- 영국 레스터市는 손쉽고 안전하게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활동을 전개함. 市는 퇴비 교육관을 운영하고 퇴비제조기 구입비용을 지원해 많은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우선 지역박물관에 전시관을 만들어 퇴비 만들기의 원리와 과정을 소개함. 다양한 퇴비제조기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종류별로 퇴비가 되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
- 5월 1~7일 '세계 퇴비주간'에 맞춰 2011년 5월 7일부터 경험이 풍부한 퇴비 만들기의 달인이 전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퇴비 만들기에 적합한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함. 어린이들도 쉽게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음식물 재활용 경연대회 등도 개최함. 방문객이 먹다 남긴 음식물로 퇴비를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함.

- 집에서 퇴비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퇴비제조기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함. 220리터와 330리터 용량의 퇴비제조기를 구입한 시민이 하나 더 살 경우 제조기 가격의 절반을 지원함. 제조기 가격은 220리터 1개당 8파운드(약 1만 4000원)로 저렴한 편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도 설치비를 포함해 1개당 7.5파운드(약 1만 3000원)의 할인가로 제공함. 이밖에 市는 홈페이지를 통해 퇴비를 많이 만드는 가정을 위한 공동 퇴비화 프로그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함.

([www.leics.gov.uk/pressrelease.htm?id=224500](http://www.leics.gov.uk/pressrelease.htm?id=224500))

## 6. 가로수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로수의 미래’ 계획 발표 (런던)

- 런던市는 도심 녹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무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런던 가로수의 미래’란 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은 33개 자치구에 나무를 심는 차원에서 나아가 가로수 심기, 관리, 훼손을 막는 방법 등을 담고 있음. 동시에 이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나무심기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예산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市는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주요 권고사항도 이번 계획에 반영함.
- 市 환경위원회는 각 자치구들이 가로수 식재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도록 하고 이를 취합해 런던 전체 차원의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이를 통해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나무심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공공장소에 심은 수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헤이게이트 주택단지 사례)】

- 2012년 완료되는 현재의 나무심기 프로그램에 이어 시행되는 ‘재녹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이의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제시함. 이 과정에서 나무심기가 가장 필요한 자치구와 지역도 파악함.
- 불필요한 가지치기와 훼손을 막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함. 이를 위해 런던 내 자치구 간 협의를 추진함.

([www.london.gov.uk/publication/branching-out-future-london's-street-trees](http://www.london.gov.uk/publication/branching-out-future-london's-street-trees))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방치 자전거 중점 관리 (일본 오사카시)

- 일본 오사카시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치된 자전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007년도에 약 5만 대였던 역 주변 방치 자전거를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약 2만 5000대로 줄여 전국에서 방치 자전거가 제일 많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방치 자전거를 대폭 줄인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에게 꾸준히 방치 자전거 수거활동을 홍보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해 이용을 촉진하며, 역 주변에 자전거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다양한 시의



노력을 통해 이룩함. 하지만 아직도 역 주변에 많은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어 市는 계속적으로 자전거 주차장 정비와 방치 자전거 수거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임.

([www.city.osaka.lg.jp/kensetsu/page/0000123469.html](http://www.city.osaka.lg.jp/kensetsu/page/0000123469.html))

## 도 시 교 통

### 7. 임대자전거 프로그램을 도심 외곽으로 확대 (런던)

- 런던市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임대자전거 프로그램인 ‘런던 스카 이 라이드’(London Sky Ride)를 도심에서 나아가 도심 외곽으로 확대할 계획임. 이를 위해 市는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13개 자치구 주민들도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자전거 타기 이벤트를 힐링 던, 바킹·대거넘의 2개 자치구에서 2011년 여름 개최하기로 함.
- 市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도심에서 이루어진 이전 행사 때 보다 市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13개 자치구를 대표해 2011년 여름 행사를 유치한 2개 자치구는 市로부터 400만 파운드(약 71억 원)를 지원받게 됨. 이 재원은 자전거 이용촉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市는 임대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자전거 이용객이 15% 정도 증가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가 자전거 이용자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힐링던區는 지원받은

재원으로 '사이클 허브'(Cycle Hub)를 지역에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노선,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 등 각 분야에서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바킹·대거넘區는 자전거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비즈니스 업체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市는 이를 통해 市 전체 자전거 이용건수의 절반이 도심 외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이 행사 개최의 목표로 삼음. 이번 행사는 현재 통근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 통근을 줄이고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건강한 지역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announces-outer-london-sky-rides-and-investment-biking-boroughs](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announces-outer-london-sky-rides-and-investment-biking-boroughs))

#### 도심 내 대중교통수단으로 곤돌라 운영 검토 (캐나다 켈거리市)

- 캐나다 켈거리市는 대중교통시스템의 하나로 곤돌라 운영을 검토 중임. 곤돌라는 케이블을 이용해 3~5km의 거리를 운행하고 중간에 정류장도 설치할 수 있음. 市는 켈거리 북서 지역이 교통 혼잡으로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곤돌라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힘.
  - 곤돌라는 경전철에 비해 건설기간이 짧고, km당 평균 500만~1000만 달러(약 54억~108억 원)의 건설비용이 듦. 차량 1대에 평균 6~1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배차간격을 10초 단위로 운영할 수 있음. 市는 곤돌라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 곤돌라를 도심 내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는 미국 뉴욕市와 포틀랜드市, 스위스 취리히市, 포르투갈 리스본市,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등임. 특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대표적인 슬럼가를 대상

으로 2011년 3.4km 구간을 운행할 수 있는 곤돌라를 도입함. 152대의 차량으로 하루 평균 3만 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종착역까지의 통행시간은 약 16분임.

- 이들 도시들은 그동안 지적받은 곤돌라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 중임. 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함. ② 역간 운행시간이 수 분 이내로 짧기 때문에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함. ③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을 제공함.

([www.cbc.ca/news/canada/calgary/story/2011/05/02/calgary-gondola-lrt-service.html?ref=rss](http://www.cbc.ca/news/canada/calgary/story/2011/05/02/calgary-gondola-lrt-service.html?ref=rss))  
(<http://gondolaproject.com/>)